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여...

들어가는 말

한국 가톨릭교회의 의료사업의 뿌리는 19세기 중반, 곧 조선 후기 박해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 100년에 걸쳐 지속된 박해 속에서도 한국천주교회는 자선·사회사업의 일환으로 고아원 운영과 시약소 설치 등,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의료를 소개하고 시행하는 선구적인 의료 활동을 펼쳤다.

1857년 서울에 시약소 설치를 시작으로 그 후 진료소에서 의원으로 그리고 성모병원의 설립까지 박해시대부터 근 80년 동안 한국 가톨릭교회의 의료 활동은 지속되어왔다. 자선 의료의 실천과 선교 그리고 교우들을 위한 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세워진 성모병원은 현대 의학의 발달과 윤리 문제의 대두 그리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왜 교회가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실제로 교직원들의 정체성 인식 부족으로 당시 성직자, 수도자들의 기본적인 환자 방문마저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여의치 않았을 만큼 자못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가톨릭계 병원 전체의 위기로 다가왔고 결국 가톨릭중앙의료원뿐 아니라 가톨릭병원협회 전체의 이념을 제정하기에까지 이른다. 곧 교회의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병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어라”(루카 10,8-9)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의료사업은 교회 초창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이며, 가톨릭 의료기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재현할 의무가 있음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과 당위성에 부응하여 1984년부터 이념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1986년에 이르러 현재의 이념을 공식적으로 제정하였다.

이렇게 이념은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1962년에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중요한 직무중 하나인 이념구현실에 소속된 원목팀의 정체성을 더 긴 설명 없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박선경 마리오한 수녀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팀장

01 |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atholic Medical Center, 이하 CMC) 원목팀은 1962년 6월 16일 가톨릭중앙의료원 기구가 발족되어 산하 기구로 성모병원(중구 명동 2가1) 내에 원목실이 발족되었다. 원목팀은 의료지원 및 선교업무를 통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보살피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념을 실천한다.

02 |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팀 산하기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함께 하는 기관들은 8개의 병원과 1개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1935년 설립된 성모병원, 1955년 개원하고 1962년에 부속병원으로 편입된 성모자애병원, 1967년에 개원한 성빈센트병원, 1957년에 개원하고 1969년에 의료원과 자매결연 그리고 1976년에 부속병원이 된 대전성모병원, 1980년에 개원하고 의료원이 함께하게 된 강남성모병원*, 그리고 1982년 성바로병원, 1993년 개원한 의정부성모병원 그리고 1954년 개교한 의과대학이다. 이들은 현재 각각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바로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들이다.

03 |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팀이 하는 일들

1) 원목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영적돌봄 전자의무기록지' 개발 및 진행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CMC nU(neuro-Ubiquitous

Project)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CMC 산하 8개 병원 통합·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 경영을 바탕으로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의 창구가 마련되었다. 원목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도 이러한 조직의 변화에 맞추어 원목 EMR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원목 EMR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기관 원목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서식의 통합과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원목 업무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꾀하는 방대한 작업을 거쳐 현재 CMC 산하병원 중 CMC nU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는 병원의 원목팀에서 사용 중이다. 원목 EMR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에 대한 정보가 표준화·전산화됨에 따라 영적돌봄의 대상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원목활동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증대 그리고 활동의 질 향상 및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원목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의 전인 치료에 협력하게 되었다.

2) CMC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목자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

(1) 원목자 연수 및 교육

가. 신규 성직자·수도자 연수

연 1회 CMC 산하병원의 신규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과정으로 CMC 이념 및 정체성과 CMC nU 목적과 방향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연수가 진행된다.

나. 신규 원목자 직무 교육

CMC 산하병원의 신규 원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1박 2일 과정이며 내용으로는 '영적돌봄 임상 지침', 'EMR 영적돌봄 임상 사례 발표' 등의 영적돌봄과 관련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2009년 3월 23일 드디어 첫 진료를 시작했고 개원식은 4월 30일에 있었다. 개원에 앞서 3월 10일 발대식에서는 강남성모병원 병원기 반납 및 서울성모병원 병원기 수여식이 있었으며 교직원들 모두가 숙연한 자세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강남성모병원을 배웅하며 새로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슴에 품기도 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70여 년 간 "생명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료 역사를 이끌어 온 가톨릭중앙의료원을 모태로 하고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까지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09년 3월 23일 부터 아시아 최고의 첨단 진료 인프라 속에서 진료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원목자(사제·수도자) 연수

연 1회 원목자 연수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 된다. 이 연수 참석 대상은 CMC 산하병원 원목사제와 수도자이다. 이 연수는 주제 강의와 정보 공유 및 교환, 원목직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나누는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 원목자 역량강화 교육

연 1~4회 원목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 교육의 주제는 원목 업무에 도움을 주는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그동안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꿈과 영성', '돌봄 영성과 베푸프로젝트(Virtues Project), 리더십 영성 등이다.

마. 영성 연수

연 1회 실시되며 2박 3일의 과정으로 이 연수는 환자들을 돌보는 원목자들의 영적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다. '꿈, 내적치유와 자기 성장을 위한 꿈 작업', '음악치료', '영성' 등이 진행되었다.

바. 원목 세미나

연 1회 원목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동안 '노인사목'과 '임종자의 꿈'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 외에 원목 책임자와 자원봉사자 담당 수녀 회의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2)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연 1~2회 CMC 산하병원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16기까지 진행이 되었다. 교육 내용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 CMC 조직현황, 자원봉사자의 정체성, 환자의 심리적 이해 등에 관한 것이다.

(3) 기타

교직원 대상 견진성사(격년으로)와 성탄, 부활 행사 등

의 전례 행사와 직원의 영성화를 위한 피정 및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나오는 말

전통적으로 원목의 주요 관심사는 질병이나 조직이 아니라 환자이며, 전인 치료 안에서 환자에 대한 영적돌봄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다. 원목은 환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환자를 보살피는 가운데 환자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희망을 증대시키며,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함으로써 환자의 영적 치유를 돕는 것이다.

환자의 정신적, 영적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의료기관에서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잡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적돌봄의 기능을 수행하는 원목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더욱이 교회 의료기관에서 원목은 환자를 위한 전인적 보살핌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환자를 위한 사목적 배려는 교회 의료기관의 특별한 서비스로 이해되며, 모든 교직원들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팀은 CMC 산하병원의 원목자들이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있다'는 CMC의 이념을 기초로 원목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더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독일 주교회의, 병원사목에 관한 권고 「환자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1998. 4. 20), 『21세기의 병원사목』, CMC 가톨릭임상사목연구소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6, 120쪽